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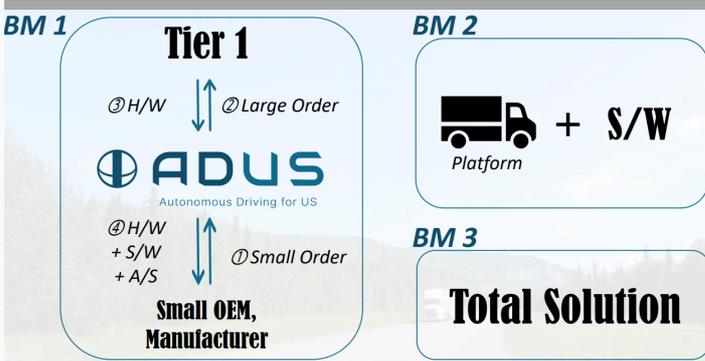
#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(23.07)

## 1) 에이디어스(주) 투자금 납입 완료

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3년 7월 18일부로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회사인 에이디어스(주)에 약 10억원(스마트안다-오택캐리어그린뉴딜펀드)을 투자하였습니다. 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[에이디어스]

### ■ 사업개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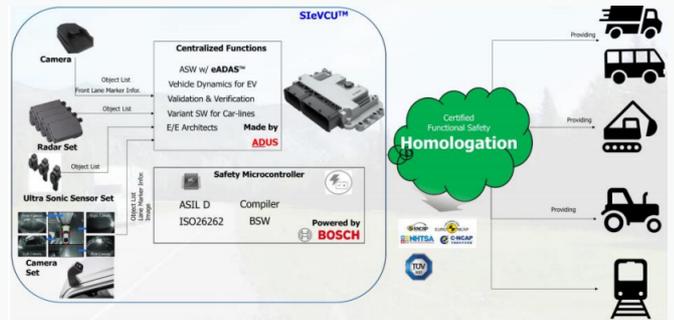
- 당사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회사로서 상용 완성차 向 차량 제어기(VCU) 통합 안전제어 시스템 결합 플랫폼 'SteVCU' 개발 중
- LG전자, PHANTOM AI 등에서 글로벌 완성차·부품사와의 양산화 및 파트너십 경험을 갖춘 국내 1세대 자율주행 개발 주요 인력 보유
- 상용차 자율주행 Safety 솔루션 제공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\*TAAS(Transport as a Service) 시장 진출을 목표중

\* 모든 움직임은 이동 수단에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는 플랫폼 서비스

### ■ 투자포인트

- 자율주행 프로젝트 관련 풍부한 경험 보유한 경영진
- 유럽 상용차 2社와 양산기술개발계약 체결로 매출실적 확보(23년 36억원, 24년 330억원 예상)
- 연평균성장률 31%에 달하는 전기/자율주행 상용차 시장에서 수익화에 성공한 자율주행 유망 벤처기업

### ■ 사업현황



- 에이디어스의 주요 사업모델은 글로벌 부품사인 보쉬 등으로부터 하드웨어를 조달. 당사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접목시킨 모듈화 제품을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양방향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
- 현재 SteVCU 관련 추가 계약 체결 관련 논의 중으로 24년 양산시 매출 330억원 예상
- 총 500억원 이상 규모 자율주행 턴키(Turn-Key)\_솔루션 적용 목표로 2社와 기술협의 진행 중(25년 킥오프 예상)

### ■ 향후 전망

	(단위: 백만원)	2022년	2023년(F)	2024년(F)
주요 재무 현황	매출액	-	3,600	33,421
	영업이익	-84	116	7,513
	당기순이익	-84	-23	4,678
향후 전망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글로벌 상용차량의 안전 규제 강화로 당사 자율주행 Safety 솔루션 수요 증가 추세</li> <li>• 당사는 자율주행 실증 사업 위주인 경쟁사 대비 빠르게 수익화에 성공하여 가시적인 매출실적을 확보할 전망</li> </ul>	

# 7월 e-모빌리티 멘토링협의체 세미나

## -반도체 산업과 한국의 전략-

### 2) 7월 e-모빌리티 멘토링협의체 세미나

2023년 7월 20일 e-모빌리티멘토링협의체는 전병서 교수님께서 "반도체 산업과 한국의 전략"이라는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. 세미나 주용 내용들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강의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아 래-

#### ■ 미·중의 전략기술경쟁과 반도체

- 미·중 갈등의 핵심인 반도체는 이제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'경제 상품'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'패권 전쟁의 전략 물자'
- 미·중의 기술 전쟁은 칩(반도체)과 심장(배터리), 인프라(통신망)의 전쟁
- 반도체 전쟁에서 믿을 것은 동맹도 이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실력뿐
-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수불가결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는 국가가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것임



#### ■ 디리스크잉(De-Risking)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더 절실

- 한국은 미·중의 기술전쟁과 자원전쟁에서 깊은 통찰력과 혜안이 필요
- 중국은 이젠 더 이상 한국의 달러박스가 아니며, 반도체, 배터리, 희토류 소재의 40~80%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대중국 외교의 초점은 자원외교에 맞춰야함
- 대미무역에서 배터리, 전기차, 자동차의 수출호조로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지만 대중무역은 적자로 돌아선 상태에서 한·중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중국은 그간의 한국에 대한 수입통제가 아니라 핵심광물과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보복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큼

#### ■ 미·중의 반도체 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

- 한국은 반도체 개발 기술력과 생산력까지 보유한 국가로서 미·중을 연결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해야함
-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벗어나는 두려움과 중국의 보복 공포에서 벗어나 '협상의 대상'이 되어야 할 것임
- 미·중의 3세대 화합물 반도체, 초전도체 등 신기술·신소재 기술선점 경쟁으로 미국표준과 중국표준으로 갈라질 것으로 보이며,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서 2개의 표준 모두에 대비해야함
- 한국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제패를 이루면 한국의 반도체도 미·중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슈퍼 엘(乙)의 길로 갈 수 있음